

|                                                                                   |                                                                                                                        |            |                   |
|-----------------------------------------------------------------------------------|------------------------------------------------------------------------------------------------------------------------|------------|-------------------|
|  | <b>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b>                                                                                              |            |                   |
| <b>회 의 명</b>                                                                      | 제33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            |                   |
| <b>일 시</b>                                                                        | 2021. 9. 10.(금) 15:30                                                                                                  | <b>장 소</b> |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
| <b>참석위원</b>                                                                       | 안대회, 안희준, 석창성, 김은상, 박동희, 김중환, 강보라, 심재용,<br>전미희 평의원 / 정덕영, 오광현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br>※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김경일 과장, 이새롬 직원 배석 |            |                   |
| <b>불참위원</b>                                                                       |                                                                                                                        |            |                   |

## 1. 개 회

- 석창성 의장이 총11명의 평의원중 9명이 참석하고 2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3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다.
- 석창성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오늘의 안건이 비전 2030 심의와 규정 개정사항 심의의 2개임을 확인하면서 기획조정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2. VISION2030 수립(안) 심의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전차였던 제32차 평의원회에서 비전2030을 이미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이후 큰 틀에서는 전차의 내용과 동일하나 표현 방식과 항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하여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에 심의를 다시 받게 되었다고 하다. 이번 심의안은 4월 평의원회 이후 비전 완성 과정에서 그동안 단과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의 구성원들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할당하며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임을 설명하다. 아울러 비전 관련 향후 일정으로 다음주 수요일에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고, 평의원회에서 비전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요약본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의 자료를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다.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다.
- 석창성 의장이 기존 절차는 전차 회의록 목록 및 채택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 전차 회의록 검토는 두 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난 후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으로 평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회의자료 10페이지의 ‘미완성의 성과 완수’, 11페이지 ‘창조적 도전’, 26페이지 ‘성대 차별화’, 27페이지 ‘성대 강좌 발굴’이라는 표현들이 전체내용 맥락상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오늘 비전 심의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4월보다는 구체화된 것 같다고 말하고, 보통 한 조직에서 비전을 세울 때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을 찾아 이를 집중 추진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 선두를 달성하면서 다른 영역을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며 어떠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묻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세계대학순위 50위 이내는 큰 격차가 없고, 이 중에서도 20위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등산 과정에서 마지막 정상 정복 과정만큼 힘든 과정이라고 하다. 우리 대학의 강점은 바이오 에너지 등을 꼽을 순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균형발전과 함

게 30개 학과는 20위 이내로 올리는 것이라고 하다. 이번 비전은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 유명 대학들이 전체 대학 순위를 언급하지 않는 세계적 추이를 확인하고, 대학 순위를 글로벌50으로 올리겠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세계적인 대학들의 중심에는 인문학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카고 대학 같은 곳을 보면 졸업시까지 100권의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의무화할 만큼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우리 대학은 유학대학 등 인문학의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인문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타 대학과의 차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이준영 처장이 최근 인문학 연구분야에서 우수 대학을 제치고 6년동안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을 수주하였음을 말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총장님 등 경영진의 적극적 지원속에 이러한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다. 김은상 평의원의 의견과 같이 인문사회분야의 발전이 우리 대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에 공감하다. 최근 인문학 교수님들이 연구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하고, 결국 연구비 증가는 대학원 활성화와 연계되므로 이러한 것들이 잘 선순환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우선 감사 의견을 표명하고, 세계적으로 인문학 분야가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탑 대학들은 인문학이 강하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우리 대학은 유학대학과 문과대학 등 인문학 분야의 강점이 많은 대학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전체 대학 발전의 견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학 본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다.
- 이준영 처장이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주를 대학 본부는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각 학문 분야들도 대학의 전략과 방향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하다. 아울러 향후 이공계열 연구에 인문학 교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반대로 인문학 계열 연구에 이공계열 교수가 참여하는 등 상호 교류의 문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안희준 평의원이 비전 추진을 위해서는 학문 단위에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는 등 구체적 단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처의 청사진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다. 아울러 지난 비전의 달성의 예로 2005년에는 우리 대학 연구력 순위가 250 위권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의 위상을 보면 놀랍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고착화된 이른바 입시 시장에 있어서의 대학 서열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하다.
- 이준영 처장이 비전 선포 후 로드맵을 세우고 학문 단위별 10년간 발전계획과 성과 지표의 구체적 달성 목표 제출을 담당부서에 요청드릴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수립된 계획들의 일부 수정 발생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다. 대학 입시의 경우 고착된 서열을 단기적 해결하는 정책 수립보다는, 실체적인 대학 발전을 이루고 이에 대한 대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중장기적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결국 대학 입시가 대학 평판도에 좌우되는 만큼 우리가 잘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고, 이번 비전 역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 김중환 비전 2030에서 목표로 하는 교원수와 논문 수 등을 보았을 때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 직전 비전 2020+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조정한 것은 결국 재정

의 압박 때문이었음을 상기하고 이번 비전2030에서도 재정계획 수립이 현실적인지 묻다.

- 이준영 처장이 이번 비전 2030 재정 계획은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였는데 현재의 우리 수입구조만 보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와 이에 대비한 전략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향후 해야 할 일을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히다.
- 김은상 평의원이 11페이지의 ‘VISION2030 플랫폼 생태계’는 작은 인쇄물로 만들어 총장님이 학생들을 만날 때 하나씩 나누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 제시하고, 이준영 처장이 이렇게 비전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의 제안은 좋은 의견으로 본다고 하다.

### 3.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석창성 의장이 두 번째 사안 설명을 듣자고 하고, 이새롬 직원이 지난 교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규정 개정건에 대해 설명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일부 내용에서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대학원행정 업무가 단과대학으로 갔다가 대학원팀으로 가는 등 잦은 변화로 인한 혼돈을 주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다.
- 이준영 처장이 현재는 대학원 학과 업무 행정처리는 대학행정실이 하고, 대학원팀은 정책과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다. 대학원장 신설은 전체 대학원에 걸친 업무들을 총괄하는 직제가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장학금 배분 등의 대학원 전체에 걸친 업무는 대학원팀이 하고 일반적인 학사 업무는 기존과 같이 대학 행정실에서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박동희 평의원이 인문학의 지원에 대한 대학의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대학차원의 지원을 통해 세계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 일부 학문 분야가 시간이 흐르면 서 점차 퇴색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다. 학칙 개정 건을 보면 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작성시 강조할 부분이나 설명할 부분들을 간략히 요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다.
- 이준영 처장이 규정심의위원회의 자료와 동일하게 건별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도록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하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을 수주한 학문 분야도 국고지원이 끝나면 활력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검토 후 제도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의견 밝히다.
- 전미희 평의원이 비전 성과지표 중 정량적인 부분은 매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와 일부 지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부분, 연구비 증가액에 비해 논문수 증가수가 더 커 보인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는 의견 제시하다.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은 어느 대학이나 다 하는 추세지만 인품교육 하면 성균관을 떠올린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성대생이 다르다는 것을 집중하여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의견 피력하다.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입시 관련 우수학생 확보를 언급했는데 우수학생에 대한 정의수립과 창의적 학생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 이준영 처장이 우수학생은 미래 인재로서의 자질과 잠재역량이 보이고 성대에 대한 열정 등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단순히 강의를 듣는다고 인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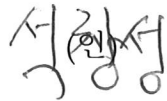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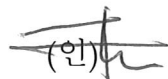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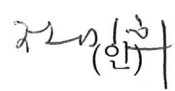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것이 대학의 강점은 맞다는 의견 제시하다.

- 심재용 평의원이 보통 우수학생 하면 학업 우수성을 떠올리겠지만 학업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결국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 피력하다. 앞으로 총학생회장으로서 이에 대한 발굴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입시 시장에서 우리의 위에 있는 우수 대학들보다 정원도 적은데 대학 순위에서 이들을 자주 앞서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고 하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란 인품과 인격이 완성되고 사회 기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이러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 석창성 의장이 2개의 심의 사안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VISION2030 수립(안) 및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다.

#### 4. 전차 회의록 채택 등

- 석창성 의장이 회의 초반 밝힌바와 같이 심의사항 의결을 마치고 전차 회의록에 대한 확인을 평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다.
- 심재용 평의원이 비전 2030 심의 과정에서 평의원들이 우리 대학만의 차별성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과연 대외적으로도 매력적인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다. 우리가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닐 경우 특색이 되는 것이지 강점은 아닐 것이라고 하고, 수험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다같이 뛰어야 하므로, 일반 학우들이 우리 대학의 지향점에 대해 좀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이준영 처장이 우리 대학의 장점을 적절한 방식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대학의 목표에 대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안대회 평의원이 11페이지의 ‘大’라는 한자가 문맥상 조금 안맞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하고, 이준영 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하다.
- 김은상 평의원이 학생 뿐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우리 대학의 유학관련 학습을 하면서 인품을 높이면 학생들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는 의견 피력하고, 이준영 처장이 취지에 있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다.
- 강보라 평의원이 비전2030 목표에 글로벌수업 100% 달성이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지금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임을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성대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 피력하고, 학교 차원에서 동문과의 커넥션도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한다고 하다.
- 이준영 처장이 비전2030은 학생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이제 수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강의실 수업에서 탈피하면서 기존 일방적 수업이 아닌 것은 모두 혁신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7:1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     |                                                                                        |     |                                                                                        |     |      |
|-----|----------------------------------------------------------------------------------------|-----|----------------------------------------------------------------------------------------|-----|------|
| 안대회 |  (인)  | 안희준 |  (인)  | 정덕영 | <위임> |
| 석창성 |  (인)  | 김은상 |  (인) |     |      |
| 박동희 |  (인)  | 김중환 |  (인)  |     |      |
| 강보라 |  (인)  | 심재용 |  (인)  |     |      |
| 전미희 |  (인) | 오광현 | <위임>                                                                                   |     |      |